

# 이병기 시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김 옥 성\*\*

## ■ 차례 ■

1. 서론
2. 동일화와 생명 평등 의식
3. 양화(養花)의 상상력과 자아실현
4.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 일원론
5. 농촌 공동체의 상상력
6.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이병기 시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을 탐구한다. 같은 동양 종교이지만 불교와 도교의 생태학은 생명중심주의에 해당하는 반면, 유교적 생태학은 포용적 휴머니즘에 해당한다. 이병기는 유교와 깊이 관련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일기를 비롯한 다양한 산문에서 자신의 유교 생태학적 사유를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이병기의 시조에 나타난 유교 생태학적 상상력을 ‘생명 평등 의식’, ‘양화의 상상력’,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 일원론’, ‘농촌 공동체의 상상력’ 등의 네 차원에서 탐구한다. 이병기의 유교적 생태시학은 심층생태학의 보편적 토대인 생명 평등 의식을 포함하면서, 유교적 생태학 고유의 면모를 다채롭고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병기의 유교적 생태시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참여, 그리고 인위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의 생태시학의 이상은 자연, 인간, 문화의 하모니이다.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국 현대시의 유교적 생태시학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현대시사에 잠재하는 유교적 생태시학의 계보에 대한 탐구의 장로(長路)을 향해 내디딘 작은 시론(試論)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주제어

이병기, 유교적 생태학, 심층생태학, 생명 평등, 양화, 이원론적 일원론, 농촌 공동체

## 1. 서론

### (1) 이병기와 유교

가람 이병기(1891-1968)는 김태준(1905-1949), 조운제(1904-1976) 등과 더불어 1세대 근대 국문학 연구자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sup>1)</sup> 동시대 연구자들에 비해 이병기의 관심사는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방대하게 펼쳐졌다.<sup>2)</sup> 그러한 탓에 “잡학성(雜學性)”<sup>3)</sup>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최근에 그의 학문적 성과를 재조명하는 논의들이 잇따르고 있다.<sup>4)</sup>

- 
- 1)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 박사논문, 1998.
  - 2) 이형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어학, 고전문학, 서지학, 국악 등 폭넓은 영역의 학문연구, 시조창작과 그 이론적 모색이라는 문예운동, 고문헌의 수집 및 양란(養蘭) 등과 같은 문인적 취미활동을 평생에 걸쳐 병행해나갔다.”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화사연구』10권 1호, 1997, 345쪽.
  - 3) 박성의, 「국문학의 시대별 연구사」, 『한국문학연구사』, 예그린, 1978, 29쪽. ; 이형대, 위의 글, 346쪽.
  - 4) 류준필, 「이병기의 학문과 그 특성」, 진재교 외,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삶과 학문』, 성대출판부, 2009. ;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 전도현, 「이병기의 한글 문예운동에 대한 일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20, 한국근대문학회, 2009.

이병기의 폭넓은 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시조의 연구와 창작 분야이다.<sup>5)</sup> 이병기는 우리 시조의 발생과 변모, 구조 등 총체적인 면모를 체계적으로 밝혀왔다. 그의 시조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시조 현대화론이다. 시조의 현대화에 대한 견해는 그의 창작과 직결된다. 이병기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죽은 장르가 아닌 살아있는 장르로서 동시대에 적합한 시조를 모색하면서, 창작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이병기는 「시조는 혁신하자」<sup>6)</sup>에서 현대 시조의 내용적 요건으로 ‘실정실감(實情實感)의 표현’, ‘취재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면서 개성적인 인

5) 일석은 조사에서 “시조! 하면 가람을 연상하게 되고, 가람! 하면 시조가 앞서게 된다”라고 가람과 시조를 결부시키고 있다. 이희승, 「가람 형의 영면을 곡함」, 『동아일보』1968. 12. 1.

이병기의 시조(론)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는 다음을 예시할 수 있다. 김윤식, 「이병기론」, 『현대시학』, 1970. 4-6. ; 임선목, 「가람 이병기론」, 『단국대 논문집』5, 1971. ; 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5. ; 이기반, 「가람 이병기의 시조시학과 혁신론」, 『교육논총』9, 전주대학교육문제연구소, 1994. ; 강영미, 「이병기의 시조론과 창작의 실제」,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학회, 1999. ; 배개화, 「이병기를 통해 본 근대적 ‘문학어’의 창안」, 『어문학』89, 한국어문학회, 2005.

6) 그의 가장 대표적인 시조론인 「시조는 혁신하자」(『동아일보』, 1932.1.23.-2.4.)에는 이병기의 시조 창작방법론이 집약되어 있다. 이병기는 ‘실정실감의 표현’, ‘취재 범위의 확장’, ‘용어의 현대화’, ‘격조의 변화’, ‘연작 지향’ 등의 다섯 가지를 현대시조 창작의 방법론으로 제시한다. 뒤의 세 가지는 형식적 차원의 논의로서, 고어와 외래어를 포용하는 시어의 선택과 확장, 정형률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리듬, 현대의 복잡한 생활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연작 형태 등 현대사회에 알맞은 시조 형식에 관한 논의이다.

한편 앞의 두 가지는 현대 시조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실정실감의 표현’은 작품에 개인의 개성적인 감정과 감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취재 범위의 확장’은 소재의 확장과 개성적 인식에 관한 견해이다. 두 항목 모두 창작 주체의 개성을 강조하면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현대 시조는 천지만물을 소재로 삼을 수 있으므로,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창작 주체는 소재를 개성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개성적인 감정과 감각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과 표현, 즉 '자아'를 강조한다. 본론에서 드러나겠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시인의 세계관에 기반을 둔 개성적인 사유와 상상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병기의 생애와 산문에 나타난 지배적인 세계관은 유교 전통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이병기 시조를 유교적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병기는 유교적인 가풍에서 성장하였으며, 평생에 걸쳐 유교적 가치와 선비문화를 추구하여 왔다.<sup>7)</sup> 그러한 전기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게 이병기의 산문과 작품 곳곳에는 유교적인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병기가 전통적 시조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조의 현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자유시가 아닌 '시조'라는 형식을 고수했던 것도 전통과 예(禮)를 숭상하는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유교적 생태학을 고찰하기에 앞서 에세이에 나타난 세계관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의 대표 에세이 「시조는 혁신하자」의 차원에서 그의 유교 생태학적 세계관을 간단히 검토해보자.

같은 山水花鳥를 보더라도 그것이 다 다른 줄을 아는 이라야 한다. 옛 時調에서나 어느 詩歌에서 보던 山水花鳥를 그대로 머리속에 넣어 두고는, 어느 山水花鳥를 보든지 한모양으로 하여 그제 그제라 해서는 아니된다. '夫物之不齊, 物之情也'라 하는 말과 같이, 무슨 物件이든지 그것마다 다른 性格이 있다. 이 다른 性格을 보고 아는 그 사람은 곧 詩人일 수 있다. 하나, 詩人이라고 本來 뱃속에서부터 그런 걸 알아 가지고 나온 건 아니다. 詩人이 되려면 상당히 鍛鍊도 하여 가며, 觀察力도 늘이고 깊이 玩賞도 하여 人生, 自然

7) 이와 관련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승범, 「가람 이병기론 서설」, 『문학한글』8, 1994. ; 이형대, 앞의 글. ; 김제현, 『이병기 - 그 난초 같은 삶과 문학』, 건대출판부, 1995. ; 최승호, 「이병기의 시와 시학에 있어서 유가적인 미적 형상방식」, 『한국적 서정의 본질 탐구』, 다운샘, 1998.

그 모든 것에서 그 材料를 取할 대로 取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 송이 꽃에 서도 天國을 보고, 한 刹那 사이에서도 無限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眼目과 力量이 없을망정, 그 材料가 不足한 건 아니다. 그 材料만은 어디든지 가득하게 쌓여 있다. (중략)

털끝이 泰山보다 크고, 겨자씨 속에도 三千世界가 있다 하는 말을 생각하면, 실상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도 모른다. 반드시 크다는 것만이 材料가 아니라 작은 것도 또한 材料다. 一木一石이나 一草一花도 훌륭한 材料다. 그 材料라도 그 全部를 다 보고, 또는 그 變化되는 現象을 다 보고 取한다면 무진 무진하다. — 「시조는 혁신하자」, 『가람문선』<sup>8)</sup>, 323-324쪽.

인용문은 시조 현대화의 내용적 차원으로서 ‘취재 범위의 확장’에 해당되는 일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 시조는 천지만물을 소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가 “무진무진”하다. 그리고 시의 소재가 되는 모든 사물들은 “그것마다 다른 성격”이 있다. 그러한 이병기의 사유체계에서는 참새들도 한 마리 한 마리가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털끝이 태산보다 크고, 겨자씨 속에도 삼천세계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사물들이 하나의 소우주라는 의미이다. 그의 세계관에서 천지만물은 각각이 하나의 소우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병기의 세계관에는 미물들도 개성과 소우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유교적 생태학에 착근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사물의 “전부”는 “그 변화되는 현상”과 등가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변화되는 현상”은 유교적 생태학에서 이끌어낸 표현이다.

유교적 생태학의 심층적 토대가 되는 『周易』의 핵심은 자연의 변화 원리이다. 유교적 생태학이 자연의 변화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유교가 사계절이 분명한 온대지방의 농경사회의 토대에서 발생하고 성장하였기

8)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때문이다. 농경사회는 자연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와 흐름을 읽고 자연의 율동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교적 생태학에서 자연의 '변화'는 대우주의 리듬과 율동이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자연의 생명력에 상응한다.<sup>9)</sup>

그러한 유교적 생태학에 호흡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병기의 사유체계에서 한 사물의 "전부"의 이해는, "그 변화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병기 시 곳곳에서 자아는 자연의 변화로서 대우주의 리듬-율동과 동일화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10)</sup>

인용문에 나타난 이병기의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누구나 사물의 개성과 소우주를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인의 자질의 한 항목으로 "단련(鍛鍊)"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서권기(書卷氣)」<sup>11)</sup>의 "공정(工程)"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유교적인 수양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병기에게 자연의 이해는 "돈오(頓悟)"적인 것이 아니다. 수양의 과정으로서 "단련"을 통해 천지만물을 이해하는 안목을 얻게 된다. 이병기의 세계관에서 수양은 유교적인 자기-경작의 차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9)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윤사순,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 나남출판, 2006, 222-233쪽. ; 곽신환, 「주역에서의 자연관」, 김성진 외, 『생태문체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225-254쪽. ; 최영진, 「유학에서의 정치와 자연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편,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2005, 209-220쪽.

10) 가령, 「ष의 가을」(『가람문선』, 68쪽.)에서 화자는 가을로 접어드는 자연의 변화를 섬세하게 읽어내면서, "천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화자가 자연에서 '천지의 변화' 뒤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병기 시에서 자연의 순환 리듬은 '천지의 변화' 이면에 깃든 우주적 생명력이다. 시적 주체는 주로 사계절의 변화로 표상되는 자연의 율동과의 융화를 통해 천인합일의 경지를 형상화한다.

11) 『문장』1권 2호, 1939.

이처럼 이병기의 대표적인 시론을 심층에서 지탱하고 있는 세계관이 유교적 생태학이다. 유교적 생태학은 시론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드러난다. 잘 알려진 대로 이병기는 평생에 걸쳐 고서를 수집하고 화초를 기르는 취미생활을 향유하여왔다. 그에게 고서가 인류 문화와 교양의 상징이라면, 화초는 자연의 표상이다. 따라서 그의 취미생활은 그가 일평생 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왔음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생태학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인류 문화의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이병기는 식물을 가꾸며 자아와 자연의 심층적인 교감을 추구하여오면서 동시에 고서를 사서 모으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러한 이병기의 삶은 인간과 자연, 문화와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유교적 생태학의 이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생태 위기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 중 하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병기의 유교적 생태주의는 그의 시적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시사해준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병기 시조에 나타난 유교 생태학적 상상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본론의 전개에 필요한 유교적 생태학의 개념을 소략하게 살펴본다.

## (2) 유교적 생태학

유교는 ‘관계의 윤리학’이다. 좁게는 인간관계의 윤리학이며, 넓게는 인간과 우주-자연과의 관계의 윤리학으로 기능한다.<sup>12)</sup> 생태학적 사고의 핵심이 관계적 사고라는 점에서 볼 때, ‘관계의 윤리학’으로서 유교는 본

12)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집문당, 1996, 139-150쪽. ; Chung-ying Cheng, "The Trinity of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Confucian Personhood", M. E. Tucker & J. Berthrong, eds., *Confucianism and Ecology : The Interrel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s*, Massachusetts : Harvard U.P., 1998, pp. 213-217.

질적인 차원에서 생태학적이다.<sup>13)</sup> 그러나 유교의 생태학적 측면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sup>14)</sup> 불교와 도교에 비해 유교는 상대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덜 생태적인 동양 종교라는 선입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sup>15)</sup>

불교와 도교가 자연과 인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유교는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차별성에 무게중심을 둔다. 유교는 언제나 인간을 중심에 두고서 공동체의 동심원을 우주를 향하여 확장해 나간다. 그러한 점에서 불교와 도교에 비해 유교가 인간중심주의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유교 생태학적 연구들은 유교에 덧씌워진 인간중심주의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투 웨이밍은 유교 생태학적 우주론을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차별화하면서 “인간우주론적 세계관(anthropocosmic worldview)”으로 규정한다.<sup>16)</sup> 청은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의 인간중심주의를 배타적 휴머니즘

13) 유교 사상에서 우주는 전일적 관계로 짜여져 있다. 터커와 버스롱은 ‘유교적 생태학(Confucian Ecology)’의 ‘자연주의적 우주론’을 ‘유기체적 전일론(organic holism)’과 ‘역동적 생기론(dynamic vitalism)’의 두 차원으로 규정한다. 첫째, 유기체적 전일론은 우주가 심리적-물리적 요소로서 하나의 ‘기’로 이루어진 전일적 유기체로서 자기-발생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역동적 생기론에 의하면, 유기체적 우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change)와 변형(transformation)의 연쇄과정이다. Mary Evelyn Tucker & John Berthrong, “Introduction”, *Confucianism and Ecology*, pp. xxxvi-xxxvii.

14) 가령, 클라크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서양에 영향을 준 동양 종교로 힌두교, 불교, 도교 등을 거론하지만 유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J. Clarke, 장세룡 역,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있는집, 1997, 255-263쪽.

15) 좋은 예로, 개리 스나이더는 인간중심주의라는 점에서 유교를 비판하고(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2003, 49쪽.) 생태적인 면에서 불교를 높이 평가한다.(G. Snyder, “Buddhism and the Possibilities of a Planetary Culture”, in B. Devall and G. Sessions, *Deep Ecology :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alt Lake City : Gibbs M. Smith, Inc., 1985, pp. 251-253.)



(exclusive humanism)으로 비판하면서, 유교를 포용적 휴머니즘(inclusive humanism)으로 평가한다.<sup>17)</sup>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유교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요소는 반생태적인 면이 아니다. 유교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요소는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맞물려 있다. 노영찬이 율곡 사상을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우주는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해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수용되는 해석학적 실재(hermeneutical reality)이다.<sup>18)</sup> 인간의 우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우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관적이고 해석학적인 우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교적 생태학에서 인간은 우주 해석의 주체이다.

유교에서 인간은 해석의 주체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주체이다. 그러한 점에서 유교는 포용적 휴머니즘의 범주에 속한다. 쉰에 의하면 지나간 2500년의 인류사에는 배타적 휴머니즘과 포용적 휴머니즘의 두 가지 휴머니즘이 전개되었다. 전자가 근대적-데카르트적 휴머니즘이라면, 후자는 생태적 휴머니즘이다. 포용적 휴머니즘은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과 상호의존성, 호혜성에 입각하여 주체로서 인간의

16) 인간우주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대우주 속에 위치한 소우주이며, 이러한 우주론은 자연에 대한 지배나 조작이 아닌 우주와 인간의 관계적 반응의 감각을 필요로 한다. Mary Evelyn Tucker & John Berthrong, 앞의 글, p. xxxvii.

17) 쉰이 제시한 포용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주체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며, 윤리적 실천의 대상을 천지만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포용적'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적 휴머니즘은 천지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서의 호혜성을 특성으로 한다. 천지만물이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호혜적 관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포용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대상의 범주를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천지만물로 확장한다. Chung-ying Cheng, 앞의 글, 213-217쪽.

18) Young-chan Ro, "Ecological Implication of Yi Yulgok's Cosmology", *Confucianism and Ecology*, p. 177.

윤리적 실천의 범주를 우주만물로 확장한다.

이러한 최근의 유교적 생태학의 논의는 인간과 우주의 유기적이고 전일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우주 해석의 주체이자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위상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다.<sup>19)</sup> 농경 문화에서 성립한 유교적 생태학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참여는 흔히 경작(cultivation)의 은유로 제시된다.<sup>20)</sup> 유교적 생태학은 자기-경작에서 출발하여, 가족-경작, 국가-경작, 인류-경작, 우주-경작으로 확장되는 우주적 농촌 공동체를 지향한다. 유교적 생태학에서 이상적인 우주 공동체는 인간의 경작(참여)에 의하여 완성된다.

유교적 생태학을 비롯한 종교적 생태학은 심층생태학에 포함된다. 심층생태학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정신적 전환의 차원에서 모색하는 다양한 사조를 지칭하는 폭넓은 개념이다.<sup>21)</sup> 심층생태학의 하위 범주로서 종교적 생태학은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종교적 사유에서 생태학적 대안을 찾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원론적인 유일신교 전통보다는 일원론적인 불교, 도교, 유교 등 다양한 동양 종교 전통의 생태학적 사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교적 생태학은 불교나 도교 전통의 생태학과 다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불교의 '무아(無我)'와 도교의 '무위(無爲)'에서 '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견제하는 개념이다.<sup>22)</sup> 불교와 도교는 해석학적-윤리적 주체

19) Mary Evelyn Tucker & John Berthrong, *op. cit.*, p. xxxviii. ; Rodney L. Taylor, "Companionship with the World : Roots and Branches of a Confucian Ecology", *Confucianism and Ecology*, p. 48.

20) Chung-ying Cheng, 앞의 글, 216쪽.

21) 심층생태학은 철학, 종교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학 분야의 안 네스, 종교학 분야의 메리 이블린 터커, 물리학 분야의 프리츨프 카프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2) 반면, 20세기 후반 생태 위기를 경험하면서 불교와 도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

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주 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위상을 상대화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인간의 참여에 의해 생성되는 문화보다는 자연 그대로에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유교적 생태학은 인류의 지식과 역사 및 자연의 개발 등 모든 인위적 행위와 그 산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sup>23)</sup> 인위(人爲)의 축소화와 소극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다가가는 불교나 도교와 달리, 유교적 생태학은 경작을 통해 자연과 인간과 문화의 조화를 지향한다.<sup>24)</sup>

유교적 생태학은 자연과 인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생태학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기독교적 생태학에서 인간은 자연의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자에 의해 흠으로 빚어진 존재이다. 그러나 절대자를 대신하여 자연을 관리할 청지기(steward)의 직분을 부여받았다.<sup>25)</sup>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 차별화는 해

---

태학적 사유의 보고로 일찍부터 관심을 끌어들였다. '무아(無我)'와 '무위(無爲)'의 개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불교와 도교는 우주에서 인간의 비중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불교의 '무아' 개념 속에서 인간은 개미나 파리 같은 작은 생물과도 동등한 생명체이며, 우주만물과 상호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 도교의 '무위'는 인간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자연과 가까워지기 위한 삶의 방법이다. 불교와 도교에서 인간은 자연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자연)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23) 그렇다고 해서 유교적 생태학이 자연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유교적 생태학의 경작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자연의 리듬과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개발은 유교적 생태학의 경작의 범주를 벗어난다.

24) 유교적 생태학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 참여는 자연의 창조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인간을 대우주에 대응하는 소우주로 보는 유교적 생태학에서 양자는 동일한 창조적 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가령, 유교 사상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꾼 정원이나 자연 경관은 동일한 창조적 힘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Robert P. Weller & Peter K. Bol, "From Heaven-and-Earth to Nature", *Confucianism and Ecology*, pp. 327-328.

25) 린 화이트가 생태위기의 근본원인을 기독교로 규정한 후 기독교는 반생태적인 종교라는 견해가 팽배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독교적 생태학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

석학적-윤리적 주체로서 인간의 위상에 대한 긍정의 기반 위에 성립한다. 불교나 도교와 달리 유교와 기독교는 생태계 내에서의 인간 주체적 참여를 긍정하면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설정한다.<sup>26)</sup>

심층생태학은 생명중심주의와 포용적 휴머니즘의 두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중심주의에서 인간은 자연에 종속된 존재로, 포용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자연의 주체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생명중심주의에서는 최대한 야생에 가까운 삶이, 포용적 휴머니즘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문화적 삶이 이상적인 생태적 삶이다. 생명중심주의가 이상적 생태학이라면, 포용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특수성과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 생태학이다. 대부분의 심층생태학은 생태위기를 초래한 근대적 세계관을 인간중심주의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생명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생명중심주의적 사유는 자연에서 인간의 참여와 비중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견해이다. 불교와 도교의 생태학에 나타나는 사유는 그러한 생명중심주의에 해당한다. 반면, 유교와 기독교의 생태학은 해석과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휴머니즘에 해당한다.

본질적으로 생태 파괴의 원흉이 인간이라는 반성에 기초한 생명중심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게 축소하면서 자칫 인간혐오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노정한다. ‘뱀을 죽이느니 차라리 인간을 죽이는 편이 낫다는 에드워드 애비의 견해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

---

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적 생태학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James A. Nash, 이문균 역, 『기독교 생태 윤리』, 한국장로출판사, 1997. ;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연세대 출판부, 2006.

26) 그러나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유교가 일원론인 반면, 기독교는 이원론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야 한다는 포어맨의 주장'27) 등은 그러한 위험성이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포용적 휴머니즘은 우주(자연)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의 한 가운데에 인간을 위치시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혐오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생명중심주의는 상대적으로 인위(人爲)와 문화를 견제하는 반면, 포용적 휴머니즘으로서 유교적 생태학은 인위의 소산으로서 역사적 기억과 문화를 긍정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한다. 유교적 생태학의 이상인 '천인합일(天人合一)'28)의 경지는 자연과 인간,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다. 유교적 생태학은 불교나 도교와 같은 다른 동양 종교의 생태학과 공유하는 요소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비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론에서는 이병기의 작품에 드러난 유교적인 생태학적 사유와 상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불교와 도교는 생태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와 도교의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29)

27) J. R. DesJardins, 김명식 역,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359쪽.

28) 유교 사상에서 천(天)은 크게, 인격적인 절대자로서 상제(上帝)와 신(神), 우주의 운행법칙으로서 태극(太極)·이(理)·도(道), 그리고 자연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유교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뿐만 아니라 그를 에워싸고 있는 역사·문화적 정신과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교 사상의 천인합일은 폭넓고 유동적인 개념이지만, 보편적인 의미로는 인간과 자연·우주, 역사와 문화의 전일적 관계를 포괄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금장태, 위의 책, 64-71쪽. ; 윤사순,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 나남출판, 2006, 219-275쪽. ; 이효걸, 『동양철학의 환경윤리학적 태도』, 김성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115-122쪽. ; Tu Weiming, "Beyond the Enlightenment Mentality", *Confucianism and Ecology*, pp. 12-19.

29) 불교와 도교 생태시학에 대한 논의로는 각각 다음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옥성, 『한국 현대시의 불교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옥성, 『김관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생태적인 동양 종교로 알려진 유교의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병기는 문장과의 상징적 “종사(宗師)”로서 정지용과 청록파로 이어지는 전통적 서정시 계보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sup>30)</sup> 특히 우리 현대시의 유교적 정신사의 선봉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병기 시조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는 한국 현대시의 유교 생태시학 연구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동일화와 생명 평등 의식

이병기 시에 나타난 유교적 생태학 고유의 면모를 고찰하기에 앞서 그 상위 범주인 심층생태학의 기층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생명 평등 의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본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자칫 유교는 생명 평등 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그러나 유교가 인간의 주체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까지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와 도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심층생태학과 마찬가지로 유교 사상에서도 우주는 하나의 전일적 유기체이다. 유교 사상에서 천지만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는 끈이 ‘기(氣)’이다. 신유교의 ‘기’는 우주의 구성 요소로서 질량과 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up>31)</sup> 우주의 모든 존재는 동일한

언어문화회』74, 한국언어문화회, 2010.

30) 이와 같은 시사적 관점의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5. ; 최승호, 『한국 현대시와 동양적 생명사상』, 다운샘, 1995. ; 최승호, 「이병기, 근대에 대한 서정적 대응방식」, 『한국적 서정의 본질 탐구』, 다운샘, 1998.

31) Michael C. Kalton, “Extending the Neo-Confucian Tradition : Questions and Reconceptualiz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onfucianism*

‘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존재의 연속성(the continuity of being)’<sup>32)</sup> 속에 놓인다. 천지만물이 동일한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유교의 전일적 우주론 관점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투 웨이밍은 천지만물의 ‘혈족관계(consanguinity)’<sup>33)</sup>로, 테일러는 ‘천지만물과의 교우관계(companionship with all things)’<sup>34)</sup>로 규정한다.

유교의 우주적 ‘혈족’이나 ‘교우’ 관계는 네스의 심층생태학적 동일화(identification) 개념과 맞물려 있다. 인간과 천지만물은 동일한 ‘기’로 이루어진 혈족이자 교우 관계이기 때문에, 주돈이는 드러난 풀 한 포기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한다.<sup>35)</sup> 주돈이의 일화는 유교에 담겨 있는 심층생태학적 동일화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심층생태학적 동일화는 일종의 감정이입(empathy)을 통한 인격화(personalising)이다.<sup>36)</sup> 동일화를 통해서 자아는 모든 생물들이 자아와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병기 시의 사유와 상상의 저변에는 주돈이가 보여준 것과 유사한 유교적인 전일론에 기반한 생명 평등 사상이 흐르고 있다.

---

*and Ecology*, pp. 80-82.

32) Tu Weiming, *The Continuity of Being : Chinese Vision of Nature, Confucianism and Ecology*.

33) 위의 글, 116쪽.

34) 이는 장재의 『西銘』에서 끌어낸 개념이다. Rodney L. Taylor, “Companionship with the World : Roots and Branches of a Confucian Ecology”, *Confucianism and Ecology*, pp. 35-56.

35) 위의 글, 53쪽.

36) 교육적 차원의 예로서 안 네스는 벌레에 대한 동일화를 통하여 아이들이 벌레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일화의 방법은, 생명체에 대한 감정이입과 인격화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양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D. Rothenberg, tr. and e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5, pp. 171-172.

나무숲 침침하여 낮도 또한 밤과 같다/ 풀썩에 우는 벌레 행여나 놀랄  
세라/ 발자국 소리도 없이 조심조심 걷노라 — 『天磨山峽』2연, 『가람문선』,  
16쪽.

화자는 나무가 울창하여 밤처럼 침침한 숲을 거닐고 있다. 풀썩에는  
풀벌레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한창이다. 자아는 풀벌레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소리 죽여 “조심조심” 걷고 있다. “발자국 소리도  
없이 조심조심 걷노라”는 한 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암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발자국 소리”마저 없어졌다는 점에서 자연  
속에 소멸해버린 자아,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른 자아를 암시해준다. 벌레  
들의 삶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주돈이의 일화가 보여준 생명 평등 의식  
이나 생명 존중의 정신에 가깝다.

해만 설핏하면 우는 풀벌레 그 밤을 다하도록 울고 운다// 가까이 멀리  
에서 제서 쌓져 울다 외로 울다 연달아 울다 딱 그쳤다 다시 운다 그 소리  
단조하고 같은 양 해도 자세 들으면 이놈의 소리 저놈의 소리 다 다르구나  
// 남몰래 계우는 시름 누워도 잠 아니 올 때 이런 소리도 없었은들 내 또  
한 어이하리 — 『풀벌레』전문, 『가람문선』, 42쪽.

이병기는 다양한 생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영물시(詠物詩)를 남  
기고 있다.<sup>37)</sup> 천지만물을 제재로 삼아 노래하는 영물시는 유교 전통에서  
끊이지 않고 맥이 이어져 왔다.<sup>38)</sup> 그것은 유교가 천지만물 하나 하나에

37) 최승호는 “완상에서 오는 도락”의 차원에서 이병기의 영물시를 다루고 있다. 최승호(1995), 앞의 책, 102-117쪽.

38) 영물시의 기원은 흔히 『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경』에는 다양한 자연물들이 노래되고 있다. 공자는 『시경』을 통해 “조수초목(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多識於鳥獸草木之名—『論語』「陽貨」)”고 말하기도 하였다. 박명희, 「旅菴 申景濬의 영물시 연구」,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학회, 223쪽 참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음을 방증해준다.<sup>39)</sup> 이병기의 영물시는 그러한 유교 전통의 영물시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풀벌레」는 “풀벌레”를 제재로 삼은 영물시의 범주에 속한다. 시적 주체는 동일화의 방법을 통해 풀벌레 한 마리 한 마리에 고유한 개체성을 부여하여 인격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풀벌레 소리는 “이놈의 소리 저놈의 소리” 모두 다르게 들린다. 화자에게 풀벌레는 더 이상 타자적인 존재가 아니다. 풀벌레들 각각은 모두 인간과 동등한 인격과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다.

「병석(病席)」에도 「풀벌레」와 유사한 동일화의 상상력이 나타난다. 화자는 별이 가득한 마루 바닥에 내려 앉아 짹짹거리는 참새들의 소리를 각각 구분해낸다.<sup>40)</sup> 화자가 “이놈과 저놈의 소리”를 구분해내는 것은 참새 한 마리 한 마리에 인격을 부여하였다는 의미이다. 동일화에 의한 인격의 부여는 개별 생명체의 생명 가치를 인간의 생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한 생명 존중의 정신은 「냉이꽃」<sup>41)</sup>에서는 “냉이꽃 한 잎”이 갖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타난다. 화자는 현대과학이 “수소탄 원자탄”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냉이꽃 한 잎”의 생명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병기 시의 곳곳에는 동일화의 상상력이 나타난다. 동일화는 작은 생명체에 인격을 부여하여 생명 평등 의식을 형상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병기의 시에서는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

39) 신유교 전통에서 영물시는 격물치지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 위의 글, 240쪽.

40) “비인 마룻장에 해가 가득 비쳐들고/ 후루룩 내려 앉아 짹짹이는 참새들을/ 이놈과 저놈의 소리 들어 보고 알려라” —「病席」, 『가람문선』, 29쪽.

41) “水素彈 原子彈은 아무리 만든다더라도/ 냉이꽃 한 잎에겐들 그 목숨을 뉘 넣을까” 『가람문선』, 69쪽.

이러한 생명 평등 의식은 유교적인 생태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론적인 기반은 다르지만 불교나 도교와 같은 동양 종교의 생태학적 사유에서 생명 평등과 존중 의식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생명 평등 의식은 대부분의 심층생태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토대이다. 그러한 보편적인 생명 평등 의식은 일반적으로 야생의 생물들과의 동일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병기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의 동일화는 야생에 한정되지 않고, 양화(養花)의 상상력으로 확장되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음 장부터는 심층생태학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불교나 도교와 변별되는 이병기시의 유교 생태학적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양화(養花)의 상상력과 자아실현

이병기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sup>42)</sup> 이병기는 난(蘭)과 매(梅) 등의 관상식물 재배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평생 동안 화초를 돌보고 가꾸면서 화초의 생리를 깊게 이해하였다.<sup>43)</sup> 화초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까지 변별해내는 심미안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sup>44)</sup> 그가 남긴 산문들은 자신에게 양화(養花)가 단순한 취미의 수준을

42) 이병기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10대 후반부터 씌어진 『가람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매나무에서 위로를 얻고(『가람일기』 I, 25쪽.), 참새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가람일기』 I, 27쪽.). 그러한 자연에 대한 관심은 「난초」, 「매화」 등과 같은 수필에도 잘 나타난다.

43) 이병기는 난초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여 병든 난을 곧잘 살려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병기의 집은 “난초 병원”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風蘭」, 『가람문선』, 195쪽 참고.

44) 가령, 이병기는 춘란의 변종을 찾아내어 스스로 작명하기도 하였다. 춘란의 일종

넘어서는 “오도(悟道)”<sup>45)</sup>의 차원으로로서, 자아와 자연의 섭리를 매개하는 행위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화에 대한 인식은 유교적 생태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교나 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위적인 식물의 재배는 인간중심적이고 반생태적인 행위로 비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물(役物) 사상을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삼는 유교의 경우는 다르다. 역물은 “외적 사물을 부린다”는 뜻으로서,<sup>46)</sup> 유교적 생태학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 역할”<sup>47)</sup>을 강조하는 ‘경작’의 개념에 가깝다.

이병기 시에서 양화는 유교 생태학적 경작의 개념을 함축하는 상상력이다. 일기나 산문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서도 양화는 자아가 자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새로 난 난초잎을 바람이 휘젓는다/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  
와/ 눈뜨고 꺾이는 양을 차마 어찌 보리아// 산듯한 아침 별이 발 틈에 비  
쳐 들고/ 난초 향기는 물밀듯 밀어오다/ 잠신들 이 곁에 두고 차마 어찌 따  
리아 — 「난초 2」전문, 『가람문선』, 20쪽.

이병기 시의 양화의 상상력도 앞장에서 살펴본 심층생태학적 동일화에 의한 생명 평등 의식과 맞물려 있다. 1연에서 잠자리에 누운 화자는 감

인 “진란(眞蘭)”, “도림란(道林蘭)”, “철골소심(鐵骨素心)” 등은 이병기의 작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제현, 앞의 책, 42쪽.

45) 「蘭草」, 『가람문선』, 186쪽.

46) ‘역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민홍, 「성리학적 외물 인식과 형상사유」, 『국어국문학』105, 국어국문학회, 1991. ; 최승호(1995), 앞의 책, 34-38쪽.

47) 이효걸, 「동양철학의 환경윤리학적 태도」, 송상용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117쪽.

정이입에 의하여 난초와 동일화되어 있다. 자아는 바람에 휩쓸리는 난초가 행여 상할까봐 조바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적 자아는 난초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연 중장에서 잠시도 난초의 곁을 떠날 수 없을 것만 같다는 표현은 자아와 난초의 교우 관계가 물아일체의 경지까지 심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오늘은 온종일 두고 비는 줄줄 나린다/ 꽃이 지던 蘭草 다시 한대 피어나며/ 孤寂한 나의 마음을 적어 위로하여라//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 외로 돌아앉아 冊을 앞에 놓아 두고/ 張張이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일어라 — 「난초 3」전문, 『가람문선』, 21쪽.

2연 초장의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는 주객합일의 경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한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방 안에서 홀로 글을 읽는 자아는 난초를 좋은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심층생태학적 동일화에 의하여 자아는 난초와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병기 시에서 동일화는 자아와 화초 사이의 개별적인 교우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적 자아는 개별 생명체인 화초를 통해 우주적 생명과 교감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연 중장에서 꽃이 지던 난초에서 다시 한 대 피어나는 꽃은 소멸과 생성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순환 리듬을 암시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적 생태학에서 대우주의 리듬-움동은 우주-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때 화자는 난초를 매개로 우주적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주와 일체감을 경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네스에 의하면 자아와 다른 생명체와의 동일화는 자아실현(Self-realization)으로 이어진다. 심층생태학적 자아실현은 자아와 자연의 여러 구성원들과의 동일화를 통해 고립된 작은 자아(self)를 큰 자아(Self)

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이다.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자아는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생명의지를 갖는 존재이며, 거대한 생명의 그물에서 자양분을 교환하면서 공생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자아는 고립된 개체 의식에서 벗어나 생명의 그물 전체를 향한 “자아의 확장 (extension of self)”를 경험하게 된다.<sup>48)</sup> 자아실현은 자연·우주와 자아의 합일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유교의 천인합일과 겹쳐지는 면이 있다.<sup>49)</sup>

이병기 시에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암시하는 이미지가 “향기”이다. 「난초2」와 「난초3」에서 “향기”는 표면적으로는 자아와 난초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다. 그러나 이병기 시에서 “향기”는 그러한 표층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향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널리 퍼지는 속성을 지닌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향기”의 속성은 자아와 천지만물이 일체가 된 천인합일의 경지를 상기시켜준다.

어두운 깊은 밤을 나는 홀로 앉았노니/ 별은 새초롬히 처마 끝에 내려  
보고/ 애연한 瑞香의 향은 흐를 대로 흐른다//

밤은 고요하고 天地도 한맘이다/ 스미는 瑞香의 향에 몸은 더욱 곤하도  
다/ 어드런 술을 마시어 이대도록 취하리 — 「瑞香」전문, 『가람문선』, 23쪽.

서향의 향기가 진하게 흐르는 밤, 화자는 온 우주가 향기로 가득하다고 느낀다. 유교 사상에서 온 우주는 하나의 ‘기’로 이루어진 유기적 전일

48)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D. Rothenberg, tr. and ed., Cambridge : Cambridge U.P., 1995, p. 172.

49) 자아와 우주의 일체감 확보라는 점에서 심층생태학의 자아실현과 유교의 천일합일은 유사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의 자아실현이 인간의 역사적 기억과 문화의 가치를 간과한 반면, 유교의 천인합일은 자연 못지않게 역사와 문화의 가치들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체이다. 이 시에서 향기는 마치 하나의 '기'처럼 온 우주에 퍼져 있다. 그 향기는 자아에게도 스며들어온다. 화자는 “천지도 한맘”이라 느낀다. “천지도 한맘”은 온 우주가 자아와 일체를 이룬 전일적 경지를 함축하고 있다. “몸은 더욱 곤하도다”, “이대도록 취하리”는 천인합일의 지평에서의 자아 소멸을 암시한다. 서향의 향기 속에서 주체와 객체, 자아와 자연의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자아는 난과의 동일화에서 나아가 온 우주와의 동일화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하여 “천지”를 향하여 자아를 확장하여 온 우주가 “한맘”이라는 자아실현의 지평을 경험하고 있다. “천지도 한맘”의 경지는 심층생태학적 자아실현과 포개어지는 천인합일의 경지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기 시에서 양화는 자아가 천인합일의 경지로 나아가는 매개적 과정이다. 자아와 자연의 전일성을 지향하는 심층생태학적 자아실현의 정신은 유·불·도를 관류하는 생태학적 정신이다. 그러나 불교와 도교가 자아를 축소하는 ‘무아’와 인위를 축소하는 ‘무위’의 과정을 통해 전일성에 접근하는 반면, 이병기 시의 양화의 상상력은 경작에 의해 우주의 유기적 전일성에 다가가는 유교적 생태학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인위(人爲)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교적 생태학은 불교, 도교와 달리 인류와 자연의 전일성의 범주에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는 이병기 시에서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 살펴본다.

#### 4.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 일원론

서양 사상은 자연과 문화·사회를 연결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지만, 유교 사상은 ‘이(理)’를 매개로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는 자연의 원리이면서, 사회와 문화의 원리이다. 동일한 ‘이’에 의해 빚어진 자연의 생태계와 사회와 문화의 생태계는 상호 조응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되어 있다. 유교에서 자연과 문화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된 것은 아니다.<sup>50)</sup> 양자는 존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 사상은 ‘이원론적 일원론(dualistic monism)’이라 할 수 있다.<sup>51)</sup>

유교적 생태학은 이념적 차원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축적된 인류의 정신과 지식, 그리고 자아를 에워싼 인문적 환경에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간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지향한다. 유교적 생태학은 자연과 역사·문화·사회를 포괄하는 생태학적 관계망에 자아를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유교적 생태학은 그러한 이념의 실천적 차원으로서 수양과 학문을 강조한다. 수양과 학문은 자연과 역사·문화를 이해하면서 자아와 우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유교 생태학적 의지의 실천인 것이다.<sup>52)</sup>

50) 유교적 세계관에서 문화·사회는 “자연의 연장”으로서 “제2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조지훈, 『시의 우주』, 『조지훈 전집』2, 나남출판, 1998, 18-43쪽.

51) 이원론적 일원론은 캘턴의 용어이다. Michael C. Kalton, “Extending the Neo-Confucian Tradition : Questions and Reconceptualiz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onfucianism and Ecology*, pp. 82-86.

52) 이와 같은 유교적 생태학의 수양과 학문에 관련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ary Evelyn Tucker & John Berthrong, *op. cit.*, pp. xxxvii-xxxviii. ; Rodney L. Tylor, “Companionship with the World : Roots and Branches of a Confucian Ecology”, *Confucianism and Ecology*, pp. 43-48. ; Michael C. Kalton, “Extending the Neo-Confucian Tradition”, *Confucianism and Ecology*, pp. 96-97. ; Tu Weiming, “The Continuity

이 장에서는 ‘방’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원론적 일원론으로서 유교 생태학적 공간인식을 고찰하고, 그와 관련하여 생태학적 실천으로서 수양과 학문에 대한 사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병기 시에서 “방”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생태 공간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시적 주체는 “방”으로 표상되는 생활공간 안팎의 다양한 생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형상화한다. 특히, 파리, 모기, 빈대 등의 해충들도 자연을 구성하는 동등한 생명체로 인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한 생명체들은 자연의 순환 리듬을 상기시키면서 생활 공간에 충만한 우주적 생명을 암시해준다. 가령, 「파리」<sup>53)</sup>에서 아직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지만 파리는 봄을 알아차리고 어디선가 나타난다. 새벽부터 “잉잉거리”는 파리의 날갯짓소리는 봄을 맞아 약동하는 생명력과 순환하는 자연의 리듬을 암시해준다. 「모기·빈대」<sup>54)</sup>에서 모기와 빈대는 “녹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여름의 무성한 생명력을 환기시킨다. 「모기」<sup>55)</sup>와 「쓰르라미」<sup>56)</sup>에 나타난 귀뚜라미와 쓰르라미의 울음소리는 가을이 다가오고 깊어가는 우주의 리듬-울동을 상기시켜준다.

이처럼 이병기 시의 생활 공간은 다양한 생물들로 에워싸여져 생명력이 충만하다. 자아는 우주적 생명의 표상으로 자연의 순환 리듬에 감응하여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방”의 이미지는 이러한 생태적 생활 공간을 대변해준다.

---

of Being : Chinese Vision of Nature”, *Confucianism and Ecology*, pp. 114-118.

53) 『가람문선』, 78쪽.

54) 『가람문선』, 82쪽.

55) 『가람문선』, 81쪽.

56) 『가람문선』, 83쪽.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조그마한 나의 하늘/ 매양 그 아래서 앉고 서기도 한다/ 그러나 아주 寂然히 눕고 싶지는 않다// 絢爛한 草花들이 香氣 똬는 듯하고/ 쥐는 까만 눈으로 나를 노려도 보고/ 둥둥둥 하는 소리는 音樂으로 들을까!// 나의 天井으로 너의 運動場을 삼고/ 나의 뒤주를 너의 공간으로 삼고/ 네 비록 쫓고 쫓은 들 내 집이야 기울라 — 「天井」전문, 『가람문선』, 71쪽.

이 시는 이상적인 생태 공간으로서 방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체는 “천정”을 “조그마한 나의 하늘”로 표현하여 “방”이 하나의 소우주임을 암시해준다. 소우주로서 방 안은, 방바닥에서는 현란한 화초들이 향기를 풀어내고, 천정에는 쥐가 뛰어다니는 생태적인 공간이다. 화자는 쥐에 대한 혐오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쥐는 방 안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쥐들이 천정을 뛰어다니며 만들어내는 “둥둥둥 하는 소리”는 “음악”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지면서 생명의 리듬을 상기시킨다. 생명력이 충만한 방 안에서 화자는 고요하게 누워있을 수 없다(“아주 寂然히 눕고 싶지는 않다”). 생명의 리듬에 따라 “앉고 서기도 한다”.

“뒤주”의 양식을 축내는 쥐를 유해 동물로 규정하지 않고, 방 안 생태계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시선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근대의 배타적 인간중심주의에 의하면 쥐는 유해 동물로서 제거되어야만 한다.<sup>57)</sup>

57) 근대의 배타적 인간중심주의는 공리주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에 의거하여 인간에게 해가 되는 동물이나 잡초를 제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가령, 20세기 초 미국 정부는 인간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포식동물의 박멸정책을 펼쳤다. 그러한 시도는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졌으며, 생태위기를 경험한 후 미국 정부는 다시 포식자 복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생태위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생명의 다양성과 평등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알도 레오폴드의 경우도 1915년의 초기 글에서는 포식자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지만, 1940년 후반 ‘대지윤리’에서는 포식자를 생태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윤리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인다. 미국의 포식자 박멸정책과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

반면, 시적 주체는 포용적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유해 동물이나 잡초와 공생한 전통 사회의 생태 공동체로서 생활공간을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보여준다.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병기의 생태학적 사유와 상상에서 이상적인 생태 공간은 생명체들만의 어우러짐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인문적 교양이 생명체들과 조화와 균형 관계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유교적 생태 공간이 완성된다. 이병기는 선비의 방을 통해 이상적인 유교적 생태 공간을 형상화한다.

몹시 춥고 춥던 小·大寒도 지내고/ 눈이 내리다 비가 줄줄 내린다/ 텅  
비인 나의 그 방에 靑梅花도 다 폈다// 天井과 네 벽에는 거미줄이 쳤는데/  
쥐나 솔고 좇는 古書가 쌓여 있고/ 먼지 낀 冊床머리에 등만 외로 밝았다 —  
「청매4」1-2연, 『가람문선』, 66쪽.

이 시에서 이상적 생태 공간으로서 선비의 방은 “나의 그 방”으로 객관화된다. “그 방”은 “청매화”와 “거미”와 “쥐”와 같은 생명체들과 공생하는 공간이며, 우주의 순환 리듬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58)</sup> 유교적인 생태 공간으로서 선비의 방은 “고서”와 “책상”이 함축하는 문화와 인문적 교양 정신이 결합되면서 온전해진다. 자연과 문화가 융화된 “그 방”에서 화자 스스로 한 송이의 청매화와 동일화되면서<sup>59)</sup> 천인합일의 경지를 환기시킨다.

이상적인 유교적 생태공간으로서 “그 방”은 하나의 소유주이다. 소유주

다. J. R. DesJardins, 앞의 책, 285-328쪽.

58) 「청매4」에서 “소·대환”, “눈”, “비” 등은 계절이나 기후와 관련된 이미지로서 자연의 순환 리듬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59) “靑梅花 그것을 보고 날인가도 여기서” — 「청매4」3연 종장.

는 대우주와 교류하면서 ‘존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병기 시에서 “창”은 소우주와 대우주의 소통과 교류를 암시한다.

몇 盆 蘭과 함께 梅花를 방에 두고/ 옆에 솟은 벽이 처마보다 더 높아라  
/ 비끼는 별이나 보려 窓을 새로 갈았다 — 「그 방」2연, 『가람문선』, 70쪽.

우리 방으로는 窓으로 눈을 삼았다/ 종이 한 장으로 宇宙를 가렸지만/  
永遠히 太陽과 함께 밝을 대로 밝는다// 너의 앞에서는 술 먹기도 두렵다/  
너의 앞에서는 參禪기도 어렵다/ 珍貴한 古書를 펴어 書券氣나 기를까 — 「窓」  
1-2연, 『가람문선』, 70쪽.

「그 방」에서 “그 방”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생태 공간이다. “그 방”은 생명력이 충만한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는 방 안에 머무를 때는 “홍”에 겨워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홍도 시름처럼 때로 잊을 수 없다”), 밖에서는 그 방을 그리워한다(“행그렁 비인 그 방을 달이 와서 지킨다”). 자족적인 소우주로서 “그 방”과 대우주를 연결하는 매개항이 “창”이다. 그리고 “창”을 통해 방 안쪽으로 스며들어오는 “별”은 소우주와 대우주를 교류하는 범우주적인 생명력을 암시한다.<sup>60)</sup>

“창”은 소우주와 대우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생명력이 유동하는 통로이다.<sup>61)</sup> 「창」의 1연 중장과 종장은 “창”의 그러한 양가적 의미를

60) 이병기는 「난초 1」, 「난초 2」, 「그 방」, 「수선화」, 「매화」, 「병석(病席)」 등 여러 편의 시에서 “별”이라는 시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시편들에서는 이병기가 ‘빛’으로 쓰야 할 부분도 ‘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기 시에서 “별”은 밝음과 따뜻함의 양가적 의미를 내포한다. “별이 쬐는 장소가 생명의 서식지이다.” “별”은 생명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범우주적 생명력의 기호로 해석할 수 있다. “별”을 즐겨 사용한 점은 이병기가 생명과 생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별”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167-168쪽. ; 최승호(1995), 앞의 책, 85쪽.

내포하고 있다. 종이 한 장이 소우주와 대우주의 경계를 가로막고 있지만, 대우주의 태양은 종이를 투과하여 방 안을 밝게 비춘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 대우주에 조용하여, 방 안도 “영원히” 밝은 별이 감돌아 생명력이 충만한 생태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별은 소우주로서의 방 안이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한 대우주의 일부분임을 보여준다. “고서”와 “서권기”는 문화의 표상으로서, 이상적인 생태공간으로서의 방이 생명력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됨을 상기시켜준다.

이병기 시에서 자아, 자연, 문화의 harmoni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요소가 자아의 수양이다. ‘양화’가 자연의 경작이라면, 수양은 자아의 경작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창」에서 시적 자아의 유교적 수양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너의 앞에서는 술 먹기도 두렵다”는 자연의 섭리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서 경외심을 드러낸다. 이러한 경외심은 유교적 수양론으로서 ‘경(敬)’에 가깝다. ‘경’은 자연과의 동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건한 심리적 태도이다.<sup>62)</sup> 자아는 ‘경’의 마음가짐으로 “창” 너머의 대우주에서 흘러오는 별과 마주하면서 자연의 생명력과 일체감을 추구한다.

유교의 수양론은 자연과의 동일화에 대한 추구하고 더불어, 서책 속에 축적된 “집단적 기억, 문화적 기억, 문화적 전통”<sup>63)</sup> 등과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학문을 중요시한다. “書券氣나 기를까”는 그러한 학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자아는 ‘경’의 자세로 자연과의 동일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통해 인류의 역사·문화와의 조화를 지향한다. 화자는 자기 수양을 통해 자연과 역사·문화와 통합된 유교 생태학적인 자아

61) 「창」에서 양가적인 의미의 “창”이미지는 「발(簾)」에서 “발”로 형상화된다.

62) 금장태는 “하늘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본성을 실현하는 수양론적 방법”으로서 “경”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금장태, 앞의 책, 75쪽.

63) Tu Weiming, 앞의 글, 13쪽.

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방’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병기 시의 이상적인 생태공간이 자연과 문화와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는 유교적인 생태공간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적 자아가 ‘경’의 자세로 자연과의 동일화를 추구하면서 학문에 의한 역사·문화의 습득을 통하여 유교 생태학적인 자아실현을 지향함을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기 시에서 양화가 자연의 경작을 표상한다면, 수양은 자아의 경작, 인간의 경작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유교 생태학적 경작의 공동체적 차원으로서 농촌 공동체적 상상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 5. 농촌 공동체의 상상력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는 관계의 윤리학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관계’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은 곧 유교가 ‘관계’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유교적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유교적 공동체 윤리는 가족 관계의 윤리에서 출발하여, 인간 사회 일반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사물의 윤리로 확장된다.<sup>64)</sup> 유교의 공동체의식은 가족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공동체는 가족관계의 확장이다. ‘국가(國家)’도 하나의 가족체계이며,<sup>65)</sup> 자연과 우주도 거대한 가족체계이다.<sup>66)</sup> 가족을 핵으로 삼는 유교적 공동

64) 금장태, 앞의 책, 141쪽.

65) 위의 책, 96쪽.

66) 『주역』은 “하늘이 인간의 아버지요 땅이 인간의 어머니라는 우주론적 가족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위의 책, 87쪽.

체론의 동심원에서 가장 바깥에 놓이는 가족체계가 자연·우주이다. 유교 사상은 궁극적으로 삼라만상이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생하는 생태학적 공동체를 지향한다.<sup>67)</sup>

유교는 온대의 농경문화에서 발생하여 농경사회와 운명을 같이 하여 왔다.<sup>68)</sup> 따라서 유교의 공동체론에 걸맞는 인간의 삶은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 공동체 사회이다.<sup>69)</sup> 유교적 농업 사회는 가부장적 가족과 친족문화를 중심에 두고서 더 넓은 공동체로서 우주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여 왔다. 농경 문화에 기반한 유교적 생태학은 ‘인류가 경작을 통해 대지를 풍요롭게 일구고, 농경의 결실이 인류를 풍족하게 하여주듯이’ 인간과 자연이 호혜적 상호의존의 관계를 이루는 농촌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농경적 휴머니즘(cultivational humanism)”<sup>70)</sup>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71)</sup>

67) 사회생태학은 이상적인 생태 공동체의 구현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적 생태학은 사회생태학에 많은 점을 시사해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 E. Tucker, 「도교와 유교의 생태학적 주제들」, M. E. Tucker & J. A. Grim, eds., 유기쁨역, 『세계관과 생태학』, 민들레책방, 2002, 179-180쪽.

68) 김경옥,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유교질서」, 『유교사상연구』16, 한국유교학회, 2002. ; 宮嶋博史, 진상원 역, 「동아시아 小農社會의 형성」, 『인문과학연구』5,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9.

69) M. E. Tucker(2002), 앞의 글, 181-182쪽.

70) Chung-ying Cheng, 앞의 글, 216쪽.

71) 불교에서 농업은 살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윤회론에 입각한 불교는 생명중심주의적 우주 공동체를 지향한다. 반면 도교 전통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상에는 농촌 공동체론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도교는 근본적으로 야생의 삶을 지향하며, 농촌 공동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소국과민’은 가능하다면 적은 수의 인구조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반면 유교적 생태학은 자기-경작에서 출발하여 넓게는 우주-경작으로 확장되는 우주적 농촌 공동체를 지향한다.

몇萬年 걸고 걸은 기름진 메와 들을/ 갈고 고르고 심고 거두고 하여/ 일  
 짝이 우리 祖上도 이 흙에서 살았다 — 「農村畫帖」, 5연, 『가람문선』, 91쪽.

이병기는 「농촌화첩」 연작과 「農村의 明朗」 등 농촌생활을 제재로 한 작품들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전원생활의 생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그려내는 전원생활은 고향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이병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 「고향길에」, 「내 고장」 등의 작품에서 고향에 대한 진한 애착을 보여주었다.

이병기의 고향의식은 유교적 혈통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불교나 도교와 달리 유교에는 조상숭배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sup>72)</sup> 유교 전통에서 “하나의 인간 개체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조상과 연결되고 자식을 통하여 후손으로 연결되는 매듭의 한 고리”<sup>73)</sup>이다. 이병기 시에서 “농촌”은 흙을 일구며 대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다 (“우리 祖上도 이 흙에서 살았다”).

그러나 유교 생태학적 상상력의 농촌은 인간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유교의 공동체론에서 자아는 천지만물의 생명작용에 동참하는 관계적-생태학적 자아이다.<sup>74)</sup> 그러한 유교 생태학적 공동체론의 연장선에서 시적 주체는 농사를 ‘쥐도 살찌우기’<sup>75)</sup> 위한 우주 공동체적 협업(協業)으로 인식한다. 그의 “농촌”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인간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천인합일의 생태 공간인 것이다.

72) Julia Ching, 임찬순·최효선 역, 『유교와 기독교』, 서광사, 1993, 132쪽.

73) 금장태, 앞의 책, 93쪽.

7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유교인은 “자신을 하늘과 땅의 생명과 존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고, 이러한 공동의 참여를 통하여, 그리고 다같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동질감으로 타인과 관계한다.” Julia Ching, 앞의 책, 136쪽.

75) “벼를 가득 누려 쥐도 살지어 보고” — 「내 고장」, 『가람문선』, 77쪽.

농촌 생활을 제재로 삼는 이병기 시에서 농사의 상상력은 앞서 살펴본 양화의 상상력의 연장선에 놓인다. 화자에게 농사는 양화와 마찬가지로 우주적 리듬과의 동일화를 지향하는 경작과 재배의 행위이다.

蘭을 사랑하던 마음 무우와 배추로 옮겨/ 그 가뭄 그 더위와 함께 타고  
오그라지다/ 지난 밤 소낙비 듣고 나도 도로 젊었다 — 「庭園의 가을」2연,  
『가람문선』, 84쪽.

화자는 “난을 사랑하던 마음”을 “무우와 배추로” 옮겨왔다고 말한다. 그것은 화자에게 양화와 농사가 별개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혀준다. 양화의 상상력에서와 유사하게 자아는 작물과의 동일화를 통해 우주적 생명력과 교감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화자는 무, 배추와 동일화되어 가뭄과 더위 속에서는 위축되고(“함께 타고 오그라지다”), 소나기가 내리자 함께 싱싱한 생명력을 회복한다(“나도 도로 젊었다”). 자아는 자연의 변화로 표상되는 우주의 리듬-울동과 일체가 된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 리듬-울동과의 교감으로 확보되는 천인합일의 양상은 이병기의 여러 시편에서 발견된다.

「비 1」<sup>76)</sup>에서 농촌 마을과 농가는 “제비”, “왜가리”, “모기”, “고양이” 등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생하는 이상적인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되어 있다. 비가 내리자 “만인(萬人)”과 “삼천리 안의 산도 들도” 모두 함께 생명력을 회복한다. 화자는 이따금 북쪽으로 날아가는 왜가리를 보고 장마를 예감하기도 한다. 루카치가 말하는 ‘별을 보고 길을 찾던 시대’처럼 자아와 세계가 혼연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시적 주체가 그려내는 농촌 마을의 풍경 속에서는 자아와 더불어 천지만물이 우주적 리듬과 융화되

76) 『가람문선』, 43쪽.



어 있다.

눈 눈 싸락눈 함박눈 펑펑 쏟아지는 눈// 연일 그 추위에 몹시 붉이던  
보리/ 그 참한 포근한 속의 문득 숨을 녹여 강보에 싸인 어린애마냥 고이  
고이 자라노니// 눈 눈 눈이 아니라 보리가 쏟아진다고 나는 홀로 춤을 추  
오 — 「보리」전문, 『가람문선』, 87쪽.

화자는 “펑펑 쏟아지는 눈”으로부터 보리 풍년을 예감한다. 자아의 생태학적 시각에서, 함박눈은 한편으로는 추위에 시달리는 새싹들을 포근하게 감싸서 보리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강화해줄 것이다. 그리고 봄이 다가오면 눈이 녹아 대지를 비옥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자양분을 흡수한 보리는 대풍을 맞을 것이다. 화자는 대우주의 순환 리듬과 일체가 되어 풍년을 예감하면서 흥겨워하고 있다(“홀로 춤을 추오”). 함박눈에서 풍년을 연상하는 사유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이병기 시의 유교 생태학적 사유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동체로서 농촌 공동체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연을 경작하여 자연을 풍요롭게 일구면서 자연에서 경작의 산물을 얻는 지속 가능한 생태학적 공동체이다.

## 6. 결론

유교는 생명중심주의적인 면이 강한 불교와 도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생태적이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교 사상도 생태학적 사유를 풍부하게 구비하고 있다. 유교적 생태학은 우주-자연의 내부

에서 해석의 주체이자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중심적 위상을 정립하고, 자연뿐만 아니라 인위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호혜적 공존을 추구하는 포용적 휴머니즘 계열의 심층생태학에 해당한다.

그러한 전제 아래서, 본고는 이병기 시에 나타난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을 ‘생명 평등 의식’, ‘양화의 상상력’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 일원론’, ‘농촌 공동체의 상상력’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생명 평등 의식’은 유교적 생태학만의 고유한 면이 아니다. 생명 평등 의식은 불교, 도교 등 대부분의 심층생태학의 기층에 놓여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태학적 사유이다. 심층생태학에서 생명 평등 의식은 동일화의 방법에 의해 구현된다. 동일화는 자아가 다른 생명체를 생태학적으로 평등한 관계로 경험하는 심리적 방법이다. 이병기 시의 자아들은 풀벌레나 참새와 같은 생물들 각각에 고유한 인격을 부여하면서 동일화를 통한 생명 평등 의식을 형상화한다.

두 번째 차원부터는 포용적 휴머니즘으로서의 유교적 생태학 고유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병기 시에서 ‘양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경작의 정신을 대변한다. ‘양화의 상상력’은 다양한 화초 재배에 조예가 깊은 이병기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시적 주체는 화초와의 동일화를 매개로 우주적 생명의 울동과 교감하면서 우주를 향하여 자아를 확장하는 자아실현의 양상을 보여준다. 유교적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이병기 시의 자아실현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포용하는 점에서 생명중심주의적 자아실현보다 내포의 심급이 한 층 더 깊다.

세 번째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기 시의 “방” 이미지에는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전일성을 지향하는 이원론적 일원론의 사유가 집약되어 있다. “방”은 자연과 구분되는 문화적 공간이면서,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유교적인 이상적 생태 공간이다. “방”은 대우주와 소

통하는 소우주로서 인간, 자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방” 이미지는 이병기 시의 유교 생태학적 공간 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병기 시에서 생태학적 이념의 실천적 차원이 자기 수양이다. 시적 자아는 수양의 차원에서 ‘경’의 자세로 자연의 생명력에 접근하며, 학문을 통해 역사, 문화, 교양을 습득하면서, 자연, 역사, 문화와의 관계망 속에 정립된 유교적인 생태학적 자아를 지향한다. ‘양화’가 자연의 경작이라면, 수양은 자기 경작, 인간 경작의 차원에 해당한다.

넷째, 농촌 공동체의 상상력에는 이병기 시의 유교 생태학적 공동체론이 함축되어 있다. 유교적 생태학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경작에 의하여 자연을 풍요롭게 일구면서, 경작의 산물을 취하는 농촌 공동체이다. 농촌 공동체는 자연과 인간의 호혜적인 관계로 형성된다. 이병기 시의 자아들은 유교적 혈통의식에 입각하여 조상들의 기억이 묻어 있는 고향 마을의 농촌 생활을 지향한다. 시적 주체는 향리에서 자연의 율동과 조화를 이루어 경작을 하며 천지만물과 공생하는 농촌 공동체를 이상적인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국 현대시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와 도교 계열의 생태시학에서 미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생태학적 삶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야생적 삶이다. 그러나 이병기의 유교 생태학적 상상력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생태학적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경작적(문화적) 삶이다.

고찰한 바와 같이 이병기는 유교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생태학적 사유와 상상을 다채롭고 깊이 있게 펼쳐 보여준다. 비록 시조라는 장르적 차이가 놓여있기는 하지만 이병기의 유교적 생태시학은 우리 현대시사에 잠재하는 유교적 생태시학의 넓이와 깊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 현대시사에는 이병기의 뒤를 이어 정지용, 조지훈, 이육사 등이 유교적 정신사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교는 불교,

도교와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많은 한국 현대시인들이 유교를 내면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시인들의 시편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교적 생태시학의 양상을 발굴하여 계보화하는 일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이병기,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I·II, 신구문화사, 1984.
-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집문당, 1996.  
윤사순,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 나남출판, 2006.  
최승호, 『한국 현대시와 동양적 생명사상』, 다운샘, 1995.  
최승호, 『한국적 서정의 본질 탐구』, 다운샘, 1998.  
Ching, Julia, 임찬순·최효선 역, 『유교와 기독교』, 서광사, 1993.  
Clarke, J., 장세룡 역,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 있는집, 1997.  
DesJardins, J. R., 『환경윤리』, 김명식 역, 자작나무, 1999.  
Naess, Arne,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D. Rothenberg, tr. and ed., Cambridge : Cambridge U.P., 1995.  
Tucker, M. E. & J. A. Grim, eds., 유기쁨 역, 『세계관과 생태학』, 민들레 책방, 2002.  
Tucker, M. E. & J. Berthrong, eds., *Confucianism and Ecology : The Interrel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s*, Massachusetts : Harvard U.P., 1998.

- 곽신환, 「주역에서의 자연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편,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2005.
- 김경옥,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유교질서」, 『유교사상연구』16, 한국유교학회, 2002.
- 김옥성, 「한국 현대시의 불교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옥성, 「김관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언어문학회』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이효걸, 「동양철학의 환경윤리학적 태도」, 김성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 최영진, 「유학에서의 정치와 자연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편,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2005.
- 宮嶋博史, 진상원 역, 「동아시아 小農社會의 형성」, 『인문과학연구』5,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9.

Abstract

### A Study on the Confucian-Ecological Imagination of Lee Byeong-gi's Poetry

Kim, Ok-Sung

The ecological imagination of Lee Byeong-gi's Poetry is based on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In the Confucian thought, all things are equal, because they are composed of the same *ch'i*(氣). So, all living things are equal in the deepest dimension of the Lee's ecological imagination. The consciousness of life equality is imagined by the method of deep- ecological identification.

Lee's experience of floriculture is internalized in his poetry. By the identification with the plants, the narrator extend the self toward the cosmos. This imagination is similar to the deep-ecological Self-realization.

In the Confucian ecology, *li*(理) mediate the cosmos and the human society-culture. Both are different but connected by *li*. Therefore Confucian ecology is dualistic monism. The imagery of the room in the Lee's poetry is the Confucian ecological space reflecting the harmony of the cosmos and the culture.

The ideal ecological community is the agricultural community in the Lee's poetics. The cultivation enriches the human society and the land and all living things. In the agricultural community, the human society and the nature and all living things are in harmony.

Key Word

Lee Byeong-gi, Confucian ecology, deep ecology, life equality, floriculture, dualistic monism, agricultural community

- 논문투고일 : 2010.12.30 심사완료일 : 2011.1.27 게재결정일 : 2011.2.1